

# 손흥민 45초 벼락골... 통산 60호골

2020-2021 EPL 5라운드  
웨스트햄전 선발 출전  
1골 1도움... 팀은 무승부  
리그 7호골 득점 공동선두



손흥민이 1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EPL 5라운드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슛을 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시작 45초만에 선제골을 넣어 경기장 개장 이후 최단시간 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주의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휴식기를 보낸 손흥민(28·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고 도움도 추가했으나 팀은 막판 잇단 실점으로 승점1을 따내는 데 그쳤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0-2021 EPL 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아 경기의 첫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리그 7호 골을 넣은 손흥민은 도미닉 캠퍼트-르윈(에버턴)과 EPL 시즌 득점 순위 공동 선두에 올랐다. 이 골은 손흥민의 EPL 통산 60호 골이기도 하다.

그는 전반 7분 가량이 지날 때는 해리 케인의 골을 어시스트해 도움도 작성, 이번 시즌 리그 2호 도움을 올렸다.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돌아왔던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EPL 4라운드 2골 1도움을 이어 2경기 연속 '멀티 공격 포인트' 행진이다.

지난달 25일 스켈디아(북마케도니아)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

로파리그 3차 예선 1골 2도움을 포함하면 이번 시즌 각종 대회를 포함한 기록은 8골 4도움으로 늘었다.

그러나 손흥민의 활약이 토트넘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1골 1도움, 케인이 2골 1도움을 폭발하며 전반 3-0으로 앞서다가 후반 37분부터 내리 3골을 내줘 웨스트햄과 3-3으로 비기고 리그 6위(승점 8)에 자리했다.

3-0으로 앞서 완벽한 전반전을 보낸 후반 들어서도 리드를 지키던 토트넘은 후반 35분 손흥민이 루카스 모라와 교체된후부터 10여분간 허무하게 3골을 내줬다.

토트넘은 후반 37분 프리킥 상황에서 파비안 발부어나에게 헤딩 만회 골을 내주고, 후반 40분에는 다빈 손 산체스의 자책골까지 나오며 잇달아 불안함을 노출했다.

상대에게 흐름을 완전히 내준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4분이 모두 지날 때쯤엔 마누엘 라시니에게 중거리포까지 얻어맞고 말았다. 승점 3이 1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경기후 손흥민은 "심판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집중해야만 한다. 다시는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 좋은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탬파베이-다저스, 월드시리즈 격돌

최지만 다저스전 통산 타율 0.250... 1홈런·3타점



탬파베이 최지만.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극적으로 월드시리즈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미국프로야구(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7전 4승제)에서 1승 3패로 밀렸던 다저스는 5, 6, 7차전을 내리 따내며 WS에 진출했다.

WS행을 확정된 7차전 승부도 극적이었다.

다저스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NLCS 7차전에서 애틀랜타에 4-3으로 역전승했다.

3-3으로 맞선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코디 벨런저가 우완 크리스 마틴의 8구째 시속 151km 상커를 공략해 우월 역전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다저스는 7회부터 등판한 홀리우 우리아스가 9회까지 3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WS행을 확정했다.

이날 전까지, 역대 7전 4승제에 치러진 MLB 포스트시즌 87번의 시리즈에서 1승 3패로 탈락 위기에 몰린 팀이 극적으로 살아난 사례는 13번(15%)뿐이었다.

74번(85%)은 3승 1패로 앞선 팀이 무난히 다음 라운드에 올랐다.

다저스는 1988년 이후 32년 만의 WS 우승을 노린다. 다저스는 2017년 WS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 2018년 WS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에 무릎을 꿇었다.

1998년 창단한 탬파베이는 역대 첫 WS 우승에 도전한다. 탬파베이는 2008년 이후 12년 만에 WS 무대를 밟는다.

최지만은 올해 다저스와 맞붙은 적이 없다. 다저스전 개인 통산 성적은 4경기 16타수 4안타(타율 0.250), 1홈런, 3타점이다. 연합뉴스

# NC, 정규시즌 우승 '초읽기'

19일 현재 2위와 5게임 차  
빠르면 21일 KIA전서 확정  
이번주 가을야구 가려질 듯

21일 수원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1패라도 당하면 2020년 프로야구 정규시즌 챔피언이 결정된다.

이번 주부터 KBO리그는 잔여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거의 매일 대전 표가 바뀔 정도로 일정이 복잡하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창단 첫 정규시즌 우승을 위해 속도를 낸다.

빠르면 21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정규시즌 우승에 필요한 매직넘버를 모두 지을 수 있다.

NC는 19일 현재 80승 4무 52패(승률 0.606)로 2위 LG 트윈스(77승 3무 59패)와 5게임 차를 유지하고 있다. 매직넘버는 2위 LG가 아닌, 남은 경기 수가 많은 3위 kt wiz(76승 1무 59패)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NC는 남은 8경기에서 3승만 추가하면 자력으로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한다. 만약 NC가 20일과 21일 광주에서 열리는 KIA전에서 모두 승리하고, kt가 20일 수원 LG전 혹은

21일 수원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1패라도 당하면 2020년 프로야구 정규시즌 챔피언이 결정된다. 이번 주부터 KBO리그는 잔여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거의 매일 대전 표가 바뀔 정도로 일정이 복잡하다. NC는 이번 주에 4경기를 치른다. 만약 20일과 21일 광주에서 우승을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23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 혹은 24일 창원 LG전에서는 매직넘버를 모두 지을 가능성이 크다.

2위 LG와 5위 두산이 1.5게임 차로 밀려 있는 중상위권 경쟁은 이번 주에도 결말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0.5게임 차인 2위 LG와 3위 kt는 20일 수원에서 맞붙는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22일 잠실에서 맞붙는 kt와 두산, 23일 잠실 키움-두산전 등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기가 이어진다. 포스트시즌(PS) 진출팀을 이번 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 WKBL 휠체어농구리그 제주와 서울시청의 경기에서 제주의 김동현이 미들슛을 하고 있다.

# 제주, 휠체어농구리그 우승 보인다

18일 2라운드서 속적 서울시청 70-54로 격파

제주특별자치도 휠체어농구단(이하 제주)이 라이벌 서울시청을 꺾고 우승 문 앞까지 다가갔다.

제주는 지난 18일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 WKBL 휠체어농구리그 2라운드'에서 영원한 맞수이자 우승 후보인 서울시청을 70-54로 물리쳤다.

앞선 17일 경기에서 제주는 모든 선수들의 부진과 팀의 기동인 김호용이 5파울로 퇴장하는 불운으로 수원무궁화전지에 67-58로 충격패했다. 그러나 수원전 패배를 전화위복

삼아 김동현의 33득점 맹활약으로 서울전에서 대승을 이끌었다.

제주는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대구광역시와의 경기에서 70-42로 승리해 2라운드까지 6승 1패로 정규리그 1위를 유지했다.

휠체어농구리그는 총 3라운드까지 펼쳐지며 제주는 오는 11월 7-8일 서울시청과 신성팀 춘천장애인체육회를 홈(한라체육관)으로 불러들이는 만큼 정규리그 우승에 한층 더 다가갈 전망이다.

승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방송 프로그램 안내표. KBS1, KBS2, MBC, JIBS/SBS, EBS1, 제주 CBS FM, KCTV 등 채널별 프로그램 목록.

오늘의 운세 20일. 김중상 지단(한미) 작명역학 원장. 경시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매사 자연의 이치, 순리에 따르면 일이 풀린다. 42년 욕심이 분쟁의 소지로 남으니 나들이 필요하고 상대를 배려하라. 47년 이사 또는 변동이 오기도 한다. 52년 투자나 제테크에 대해서는 정보나 수하 사람과 상의하면 일이 풀려 나간다. 41년 내 주장은 약하게 상대의 주장을 많이 경청하는 것이 좋다. 53년 불탑을 하나씩 쌓아가는 마음이 다시 시작하라. 65년 유혹 또는 지출이 증가하고 구매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77년 어떤 일을 행하든 경기망둥은 금물. 뒷사람에게 공손하라. 89년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거나 취업이 되려다 취소된다.